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스캔하면
정정당당스토리를 만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

SNS MAGAZINE No.11 2015 07

Beautifulday



키르기스공화국에 피는 민주주의의 꽃



2015년 10월,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2015년 10월 11일 '이웃사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김대중-박정희 대통령 흉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키르기스공화국, 참 생소한 나라이지 않나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서북으로는 카자흐스탄, 서쪽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중)과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우)의 기념 촬영 모습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중)과 박근혜 대통령(우)의 기념 촬영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MAGAZINE No.11 2015 07

Beautiful Day

- 발행일 | 2015. 7. 10.
-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작기획 | 미디어과
- 구독문의 | 02-507-4351, nec863@korea.kr
- Beautiful Day에 수록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eautiful Day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에 게재된 기사물 중 '읽고 볼만한 거리'의 콘텐츠를 발췌·수록하여 격월로 발행하는 인쇄물입니다.



CONTENTS

- 03 특별기고 | “우리는 A-WEB입니다.”
- 04 특별인터뷰 | 톨립의 나라 ‘키르기스공화국’에서 만난 대한민국
- 06 특집기사 | 키르기스공화국에 피는 민주주의의 꽃
- 08 독자마당 | 댓글을 만나다
- 09 카툰 | 투표지분류기
- 10 여성과 선거 | 케이트 셰퍼드, 그녀의 집요한 투쟁이 만든 당연한 권리
- 12 영화 속 선거 | 무엇이 정치인을 재미있게 만드는가?, 영화 <대통령의 연인>
- 14 선거명예기자단 | 초등학교 반장선거가 단순한 ‘인기투표’라구요?
- 16 명작과 정치 | 한 폭의 그림에 담긴 비극적인 사건, 피카소 <게르니카>
- 18 사건을 말하다 |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합법일까? 불법일까?
- 19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Beautiful Day
- 20 영화 속 선거 | 연설을 위해 몸을 단련시킨 정치인, 영화 <킹스 스피치>
- 22 오늘의 선거역사 | 1946년 6월 2일, 이탈리아의 운명적 국민투표



12

“우리는 A-WEB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키르기스공화국의 타이르베크 사르파셰브(T. Sarpashev) 부총리가 다소 격양된 말투로 언론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는 올해 5월 1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방의회 재·보궐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자동화 기술을 ‘투명한 선거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것이 가져다줄 긍정적 변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했다.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중앙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거결과 불신으로 인해 지속적인 혼란을 겪어온 키르기스공화국 정부에게 이번 광학판독표기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은 무척 뜻깊은 순간이었음이 틀림없다. 효율적인 선거자동화시스템을 이곳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온 키르기스공화국 사업 TF팀과 함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 직원 모두가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를 전 세계에 확대하여 ‘함께 성장하는 세계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A-WEB이 창설된 지 어느덧 2년 차에 접어들었다. 무모하다고만 여겨졌던 설립의 구성 단계를 지나 대한민국에 사무처를 유치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첫 연수와 첫 선거참관을 거쳐 첫 국가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지난 시간은 A-WEB에게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이었다. 치지치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동력은 각국의 선거기관 간의 소통창구가 되어줄 A-WEB의 존재가치에 대한 확신과 놀라운 속도의 도약을 이룬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2015년에는 케냐의 중앙선거위원회(IEBC), 키르기스공화국의 중앙선거위원회(CEC)와 MOU 체결을 맺고 본격적인 국가사업(Country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 10월 14일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립총회에 참석한 키르기스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이 행사장 외부에 전시된 각국의 선거장비 중 우리나라의 선거자동화시스템을 직접 체험한 후 자국 대통령에게 도입을 적극 건의하였고 같은 해 11월 말한 대통령과 이듬해 2월에 방문한 국회의장과 중앙선거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키르기스공화국의 선거자동화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많은 국가의 시스템 중 우리나라의 선거자동화시스템을 선호한다는 것은 곧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해 우리가 그동안 해온 노력의 결실이며 국제사회가 한국에 보이는 신뢰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케냐는 지난 2013년 총선에서 1,000여억 원을 들여 선거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기반시설·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한 사업 추진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요원 교육이 실시되지 못해 시스템 성공률이 55%에 그쳐 국가적인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케냐 중앙선거위원회(IEBC)는 선거자동화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조직 및 직원 역량 개선 등을 통해 2017년 8월에 치러질 총선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자 A-WEB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A-WEB은 2014년 12월에 현지를 방문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3월에 IEBC와 MOU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첫 프로젝트로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에 걸쳐 IEBC의 선거 ICT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IEBC의 전산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강의를 제공하였으며, IEBC와 중앙선거위원회, A-WEB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향후 케냐 국가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A-WEB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키르기스공화국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자동화시스템 지원과 함께 국제참관단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창립총회에 이어 2년 만에 제2차 총회를 도미니카에서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모든 회원들과 나누고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의 연수사업, 참관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에 이어 올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결과를 얻기 위해 사무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선거한류라고 이야기한다. 사실이지만 A-WEB은 거기서 더 나아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처럼 우리의 회원기관들도 그들의 발전 경험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는 일방향의 지원과 원조에서 상호교류, 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A-WEB은 회원기관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열망하는 현재 모습에서 가능성을 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다. Global Democracy라는 것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문화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부인되고 협력사업의 가능성이 초국가적으로 열려있는 이 시대에는 모두가 경험과 지식, 자원과 기술의 수용자이자 전파자, 그리고 전달자일 수 있다. 선거기관들의 협의체로서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세계 민주주의를 꿈꾼다. ☺

임홍석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국장



틀립의 나라 '키르기스공화국'에서 만난 대한민국

정병후 주키르기스공화국 대사 인터뷰

세계선거관협의회(A-WEB)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으로 창설되어 2013년 10월 '함께 성장하는 세계 민주주의'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 세계 선거기관과 관련 국제기구의 뜻을 모아 A-WEB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키르기스공화국의 선거시스템 선진화사업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병후 주키르기스공화국 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대사님 반갑습니다. 주키르기스공화국 대사로 올해 부임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0년 외교부에 들어와 재외동포정책과장, 아세안협력과장,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공사참사관, 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을 거쳐 올해 4월 주키르기스공화국 대사로 왔습니다. 주러시아대사관에서도 두 번 근무한 경험이 있어 키르기스공화국을 포함한 CIS 지역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Q **아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키르기스공화국은 많이 생소한 나라입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어떤 나라이며, 우리나라와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키르기스공화국은 한반도보다 약간 작은 약 20만 km²의 면적에 인구 6백여만 명이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국가로 전체 국토의 80% 이상이 해발 2,000m 이상 천산(텐산)의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식골 호수를 비롯하여 2,000여 개의 산정 호수와 빙하지대, 폭포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석유나 가스 등 자원의 부존량이 적고 경제가 아직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인력과 아름답고 기름진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교류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양국 간의 교역액은 14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아탐바예프 대통령 방한 및 한류 문화의 인기가 더해져 현지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키르기스공화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알타이어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양 민족 간의 문화적 친연성과 유사성 또한 서로를 더욱 가깝게 여기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요충지에 있는 탓에 이민족 간의 무역과 전쟁, 이주를 통하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그들만의 문화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더불어, 이곳은 1,300여 명의 우리 국민과 2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고려인들은 현재 정치, 경제 각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우리 동포 사회도 아직 여타 국가에 비교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각 분야에서 열심히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Q **키르기스공화국은 중앙아시아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키르기스공화국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일관되게 발전시켜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스공화국의 민주화는 2005년 3월 발생한 반정부·민주화 운동인 '튠립혁명'에서 시작됩니다. 키르기스 북부 산악지대에서 자생하는 야생 튠립을 혁명의 상징으로 하여 튠립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2005년 2월 총선 1차 투표와 3월 실시한 재투표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 선거에서 투표혁신전-언론 조작 등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 이에 반발하여 반정부·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역시 정치 안정화와 경제개혁에 실패하고, 정부 요직에 대통령의 아들과 친인척을 앉히는 등 정실인사부정 부패와 야당-언론 탄압 등의 비민주적 통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이에 2010년 3월 다시 거센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 제2의 튠립혁명입니다.

대통령이 쫓겨나고 과도정부의 수반이 된 전 외무장관 출신 로자 오톤바예바는 정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10월 시행된 대선에서 사회민주당의 아탐바예프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는 키르기스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이양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키르기스공화국의 정치적 성숙도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최근 키르기스공화국은 성공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A-WEB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키르기스공화국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시민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나 민의에 의해서 신정권이 들어서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민의를 표현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이 선거이고, 공정선거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정부의 의지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정선거를 위한 최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델국가인 우리나라에 선거시스템의 선진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선거의 전산화는 투·개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면서도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더 큰 문제에 노출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키르기스공화국은 자동화된 선거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몽골 등 인근 국가 사례를 연구하는 등 여러 제도를 구축하며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KOICA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총 615만 달러 규모의 '키르기스공화국 선거역량 강

화사업'을 작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광학판독 개표기 지원과 투·개표집계시스템 구축, 중앙선거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는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세계선거관협의회(A-WEB)가 전담하고 있으며, 기획 및 진행 모든 단계에서 상세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각종 위험요소를 미리 분석하

'1인 1목소리'라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 후보자,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 목소리로 그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고 예방책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Q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A-WEB의 지원이 실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선거와 달리 전 점은 무엇이며, 현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5.17 지방의회 보궐선거의 전국 49개 투표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광학판독개표기가 실제 투입되어 활용되었습니다. 기계 운송부터 선거 후 모니터링까지

모두 개방된 형태로 진행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작 지원한 광학판독개표기가 1인당 1개의 투표지만 인식한다는 점, 투표마감 후 바로 그 결과가 전송되기 때문에 개표과정에서 조작할 수 없다는 점 등 가장 중요한 '1인 1목소리'라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 후보자,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 목소리로 그 효과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6월 제가 아탐바예프 대통령께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는 계기에, 대통령께서 한국의 선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사의를 표하기도 하셨습니다.

Q **이와 같은 변화가 향후 키르기스공화국 및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주요 지원대상은 투·개표시스템의 자동화 분야입니다. 얼핏 보면 하드웨어적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시스템 자동화는 선거제도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WEB은 한국의 선거관리 과정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선거제도까지 면밀하게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적인 지원이지만 상당 부분 제도구축 및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키르기스공화국만의 정치적, 민족적, 행정적, 역사적, 문화적 관습이나 제도가 우리와 다르므로 우리의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예측하고 점검하여 그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키르기스공화국의 발전된 선거모델이 인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유사한 역사적, 제도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에도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끝으로 키르기스공화국과 한국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사님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와 새마을 운동 등을 포함한 각종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울러, 한국 드라마나 K-Pop 등을 통해 키르기스공화국에 불고 있는 한류 붐을 더욱 확산시키고 동시에 키르기스 전통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활발하게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㉞

키르기스공화국에 피는 민주주의의 꽃

실크로드 따라 수출하는 대한민국 선거 ICT



2010년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재스민, 장미, 툴립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너무 쉬운가요? 맞습니다. 꽃 이름이지요.

꽃 이름이라는 것 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민혁명의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튀니지의 재스민혁명(2010), 조지아(구 그루지아)의 장미혁명(2003), 그리고 키르기스공화국의 툴립혁명(2005, 2010)이 그것이지요. 이들 혁명은 그 나라의 국화를 따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키르기스공화국의 '툴립'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키르기스공화국, 참 생소한 나라 지 않나요? 중앙아시아에 위치해서 북으로는 카자흐스탄, 서쪽으

로는 우즈베키스탄과 접하고 있는 이 나라는 국토 대부분이 해발 2,000미터 이상의 산악지대로 그중 40%는 3,000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여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도 불립니다. '툴립'하면 보통 네덜란드를 떠올리지만, 사실 툴립의 원산지는 바로 이곳 키르기스공화국입니다. 지평선처럼 넓은 고산지대에 가득 찬 각양각색의 툴립은 키르기스공화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끼고 사랑해온 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정부패를 참지 못하고 일어난 이 나라 민주 혁명에 국화인 툴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2013년 10월, 바로 이 툴립의 나라 키르기스공화국의 '투이구날리 압드라이모프'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14일부터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립총회에 키르기스공화국의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지요. 행사장 외부에 전시된 각국의 선거 장비를 돌아보는 와중에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선거자동화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큰 감격을 받습니다. 키르기스공화국 선거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분리 독립하였지만, 계속된 정치적 불안 속에 빈부격차,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시달린 키르기스공화국. 유혈사태까지 불러온 2차례의 툴립혁명을 통해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정치민주화든, 경제발전이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선출된 나라의 일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투이구날리 압드라이모프 위원장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선거시스템을 분반을만한 사례로 알렸고, 2013년 11월 '일마즈베크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방한해 키르기스공화국 국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열어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2015년 하

반기 총선과 2016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을 위해 한국의 선거시스템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키르기스공화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왠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부정선거의 역사를 겪은 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 우리나라의 얘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오랜 민주주의의 전통을 가진 서구의 발전된 민주주의 시스템보다 우리나라의 선거시스템이 키르기스공화국에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후 꾸준히 키르기스공화국 현지상황을 파악해온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선거 지원을 앞두고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하나의 투표지에 적으면 2명, 많게는 32명까지 후보자를 선택하는 선거방식(연기식)과 열악한 통신 인프라 등이 문제였습니다. 키르기스공화국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며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키르기스공화국 정부는 2013년 몽골 대선을 지켜보면서 근소한 표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출마자 모두 깨끗하게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자동화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국에도 이러한 선거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 끝에 선거자동화시스템 운용을 어렵게 했던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며 드디어 키르기스공화국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광학판독개표기(PCOS)'와 '무선모뎀시스템'이었습니다.



키르기스공화국 517 지방선거 투표장면

키르기스공화국에서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던 지난 5월 17일 저녁, 추이주 카라발타 투표소의 참관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입하면 광학스캔 방식으로 인식하여 후보자별 득표를 판독·집계하고, 그 결과를 무선모뎀을 통해 수도 비취켈 중앙선거위원회로 전송하는

동시에, 판독한 투표지는 시스템 하단부의 투표함에 수직되어 추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만든 광학판독개표기(PCOS)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과거 2박 3일씩 걸리던 개표가 10분 남짓 만에 끝났을 뿐만 아니라, 개표 전 과정에 사람에 의한 선거부정 개입을 최대한 방지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소송이 제기

될 경우 검증도 가능한 시스템에 사람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선거 당일 건조한 대기를 뚫을 듯 했던 거센 비와 도시를 휩쓴 정전, 그리고 열악한 통신환경을 극복하고 투표를 거쳐 개표 결과의 중앙 집계까지 무사히 마친 원동력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과 그동안 애써온 선거관리의 노하우였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키르기스공화국 국민에게 한국의 선거 ICT(정보통신기술)로 빠르고 정확한 선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광학판독개표기 스캐너와 투표함

"하라쇼, 하라쇼!"

선거가 끝난 후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키르기스공화국 시민단체의 비취켈 원탁회의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와 함께 '좋다'는 뜻의 러시아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키르기스공화국의 첫 선거자동화시스템 가동을 위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즐기는 것도 잠시 미루어야 합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KOICA와 함께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두고 키르기스공화국 선거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외국 정부 최초로 스위스가 7억 원을 KOICA에 추가 지원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거시스템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함으로써 수십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 또한 한국의 선거 장비를 주목하고 있고, 한국의 선거 ICT는 키르기스공화국뿐 아니라 세계의 여러 국가로 파급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마른 고원의 땅 키르기스공화국에 툴립처럼 강한 생명력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는 민주주의 선거가 뿌리내릴 그 날까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한국국제협력단(KOICA), 그리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㉞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좌)과 투이구날리 압드라이모프 키르기스공화국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우)



A-WEB의 국제선거참관단



박근혜 대통령과 일마즈베크 아탐바예프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 정상회담



키르기스공화국 시민단체의 비취켈 원탁회의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2013년 10월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창설한 선거 관련 최초의 국제기구이다. 「함께 성장하는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공정선거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무처는 인천 송도에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과 김용희 사무총장이 협의회 의장 및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SNS로 소통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댓글을 만나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SNS의 주요 콘텐츠를 편하게 받아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블로그와 SNS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업데이트 사진/동영상 추가 사진첩 만들기

kaqo****
더 많은 청년들이 유권자의 권리의 중요성을 알고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좋을 거 같아요. 만화로 보니까 알기 쉽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만화 그려주세요!

깡
콜린퍼스 팬인 제가 손꼽는 필모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와 연관시켜 서술하신 부분이 인상 깊습니다.

wass****
선거관리위원회 만화는 어떤걸까 하고 봤는데 내용도 알기 쉽고 너무 재밌네요!! 제가 생각하던 권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네요... 권리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게 되었어요.저 불만많은 캐리커 주변에 있을법해서 너무 친근하네요~ 제 친구들도 저런다는^^

북극물개
정당 국고보조금의 액수와 범위 그리고 종류가 다양하네요. 잘 배워갑니다!

피그말리온
공정하고 바람직한 선거를 위해 선거컨설턴트들의 의견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분석과 판단력도 더 높은 수준이 되어야 겠네요~

오거스틴
비록 우리나라는 어렵게 얻어낸 투표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소중한 투표권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투표에는 꼭 참여해야지요.

원형탈모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정당국고보조금인 만큼 각 정당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을 더 늘려 주시길 기대합니다.

hyases
피에타 상 꼭 기억할게요...독일 베를린에 가면 반드시 구경하고 와야겠습니다...글 잘 읽었어요.

imflair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조형물이나 행사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할 줄 알고 한편으로는 그 뜻을 이어 받을 수 있는 마음과 관용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ainstar
선관위 블로그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로 나날이 지식이 늘고 있는 1인입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들렀던 곳이 이제는 하루에 10번 이상은 들어오는 듯^^

daomom
읽을 글들이 너무 풍부하네요~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전달하려는 노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lson****
예쁜 이미지와 생각할 여유를 주는 짧은 글이 어우러져서 한참을 다시 보게 만드네요. 참 마음에 듭니다.

hans****
선거할 때 진정 성년이 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tjsdnrKim
사례를 통한 선거법이라...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거법을 재미있게 풀어주셨네요. 이런 시도 참 좋네요.

이 달의 좋은 트윗

5월의 좋은 트윗

광명시위원회

6월의 좋은 트윗

광주광역시위원회

중구위원회(울산광역시)

화순군위원회

댓글을 입력하세요...

내 이름은 투표지분류기

빠르고 정확한 개표사무를 위해 탄생한 투표지분류기! 개표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준 투표지분류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투표지분류기!

가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내 진짜 이름은 '투표지분류기'야.

나는 태어난 이유가 있어.

아~ 이 많은 열매 안채다~

아~ 동해 태네~ 피곤하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생각했지.

그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했어.

그리고 난 태어났지~!

자~ 간다아~~

나는

빠르고

정확해

심지어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어!

- 오프라인 운영 (유·무선 네트워크 차단)
- 보안 시스템 적용 (보안카드, 무결성 검증, 정당 참여)

그래도 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에이~ 그래도 그렇지 개표는 사람이 하는게... 기계는 불안해서 원...

걱정하지 마. 개표를 전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나는 투표지를 미리 분류만 해 놓을 뿐 이후에 사람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집계할 거야.

내가 미처 분류하지 못한 표도 사람들이 다시 확인하고 집계할 거야.

나는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손으로 개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태어났어.

나로 인해 개표가 더 정확하고 빨라진다면, 난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

END

8 Beautiful Day

blog.nec.go.kr 9



케이트 셰퍼드, 그녀의 집요한 투쟁이 만든 당연한 권리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여성 참정권의 역사

프랑스의 작가 쥘 베른의 작품 가운데 <15소년 표류기>를 주목해 보자. 뜻하지 않게 바다에 나와 폭풍에 휘말리고 무인도에 상륙한 열다섯 소년들은 그들 스스로 '체어맨'(학교 이름)이라 일컫는 섬에서 그들만의 작은 공화국을 이룬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 거친 자연과 맞서는 한편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한다. 물론 프랑스 출신 작가의 심술(?) 탓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영국인인 집단에서 지도자가 된 이들은 미국 고든과 프랑스인 브리앙이다. 소년들은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



게 도움이 될 사람을 뽑은 것이니 '내 고향 사람'이나 '우리 학교 출신'에 좌우되는 우리들보다는 훨씬 민주주의 수업이 잘 돼 있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엄연한 한계도 드러난다. 유일한 흑인이자 견습 선원으로 소년들의 생존에 큰 힘이 된 모코는 투표권이 없었던 것이다. 이미 노예 해방이 이뤄진 상황에서 흑인은 노예는 아니었으나 시민도 아니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 그림이 열다섯 명 가운데 여자가 끼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즉 열네 명의 소년과 한 명의 소녀로 구성돼 있었다면 소녀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답은 'No'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흑인이나 어린아이처럼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남성들에게는 보통선거에 가깝게 투표권이 확대되고 있었으나 여성들에게 투표권이란 겁나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이 기나긴 어둠을 찢는 역사적인 사건이 '15소년'의 고향에서 벌어진다. 바로 뉴질랜드에서.

알다시피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의 유형지(流刑地)로 오랫동안 활용됐다. 뉴질랜드인은 뉴질랜드에는 주로 정치범들이 유형을 왔고, 호주는 흉악범들이 주로 갔다고 주장하며 어깨를 펴기도 한다던데, 여성 참정권의 역사에 관한 뉴질랜드인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러도 용서가 될 것이다. 1893년 9월 19일 총리 '글래스고'가 세계 최초로 여성 투표권을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이 개가를 이루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여성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해 두자. 이름은 케이트 셰퍼드(Kate Sheppard). 그녀의 고향은 영국 리버풀이

었다. 비틀스의 음악을 낳은 이 유서 깊은 항구도시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의 예에서 보듯 영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서 무수히 많은 이들이 신대륙으로, 오세아니아로 이민을 떠났던 사연 많은 곳이다. 스무 살 때까지 영국에 살던 케이트 셰퍼드는 대서양을 지나 태평양을 건너는 기나긴 항해 끝에 뉴질랜드에 도착한다. 이후 케이트 셰퍼드는 뉴질랜드인으로서, 그리고 뉴질랜드 여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세계사적으로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진출 양상은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중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절제 운동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알 파치노' 같은 인물이 미국 암흑가의 거물로 성장하게 만든 배경에는 미국 전역에서 술을 금지했던 금주령의 존재가 엄연히 거니와 이 금주령을 현실로 만든 이면에는 남자들의 술 주정이라면 지긋지긋해했던 여성들의 존재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1893년에 금주 동맹이 설립됐고 일부 열혈 여성 금주운동가들은 도끼를 휘두르며 술집을 때려 부수다가 30번이나 체포되기도 했다. 케이트 셰퍼드도 출발은 비슷했다.

그녀는 1885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뉴질랜드 여성 절제회'를 조직하고 지도급 인사로 활약하게 된다. 알코올과 이혼, 각종 성적 억압과 착취 등 산적한 문제를 여성적 관점에서 풀어 나가던 그녀의 관심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모든 종류의 차별, 즉 인종, 계급, 신념과 성별에 따른 차별은 비인간적이며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All that separates, whether of race, class, creed, or sex, is inhuman, and must be overcome." 투표권의 부재(不在)는 눈에 보이는 차별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것이었다. 케이트 셰퍼드는 이후 집요하다 싶을 만큼의 투표권 확보 투쟁에 돌입한다.

하지만 벽도 높았다. 보통선거가 일반화되고 나서 독립한 나라들을 제외하고(이를테면 우리나라도 해방 후 첫 5.10 선거 때부터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서구 열강 어느 나라에서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여성들의 강력한 요구 없이 여성들의 참정권이 실현된 곳은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기존 체제가 견고했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미약했는지 모르나 뉴질랜드에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의 벽은 높았다. 지적으로 열등하거나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여성에 대한 완고한 오해도 있었지만 케이트 셰퍼드를 견제해야 할 이유는 더 있었다. 술에 대한 절제를 주장했던 케이트 셰퍼드와는 달리 다른 많은 남성 정치인들은 주류 회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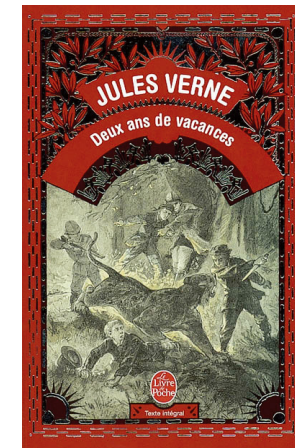
케이트 셰퍼드는 1888년 처음으로 여성 투표권 도입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의회의 대답은 'NO'였다. 1891년 9천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역시 거절당한다. 1892년에는 2만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이 다시 의회로 올라간다. 이때 하원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지만 어느 나라든 보수적인 남성들이 지배하기 쉬



운 상원에서 거부당했다. 하지만 케이트 셰퍼드는 포기하지 않았다. 1893년 뉴질랜드 성인 여성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만 2천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또다시 제출했고, 의회는 20대 18이라는 간발의 차이로 여성 투표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9월 18일 총리가 서명하면서 뉴질랜드 여성들은 인류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케이트 셰퍼드는 기쁨에 젖기보다는 냉정한 코멘트로 이 승리에 화답한다.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신사분들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성도 세금을 부과 받고 징역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은 것뿐 이니까."

하지만 이는 참정권의 첫 문턱을 넘어선 것일 뿐이었다. 여성들에게 선거권은 보장됐으나 피선거권은 그로부터 30년 가까이 인정되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 여성의 피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1919년에 이르러서였으며, 그나마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은 1933년이 되어서였다. 여성 참정권에 관한 한 세계 최후인 뉴질랜드에서조차 여성 정치인이 국회에 입정하는 모습은 투표권 확보 후 40여 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마치 가나안 앞을 두고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성 국회의원이 뉴질랜드 국회에 등원하는 것을 본 1년 후, 케이트 셰퍼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뉴질랜드 사상 첫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신사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내줬다고 고마워하지 마요! 당신에게는 할 일이 더 많아 권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알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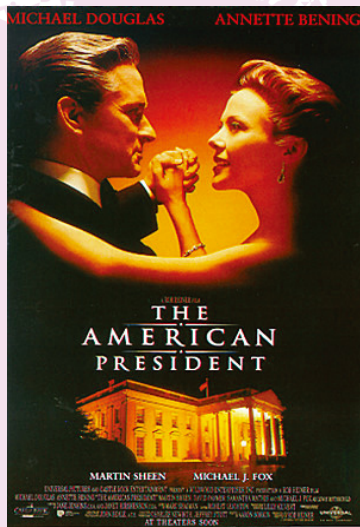


필진 김형민 PD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전공인 국사와 세계사를 틈틈히 공부해 SNS와 블로그에 '산하의 오역'이란 제목으로 역사관련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모은 글을 엮어 '그들이 살았던 오늘'의 제목으로 책을 냈다. 현재 sbncbc에서 PD로 활동 중이다.

무엇이 정치인을 재미없게 만드는가?

영화 <대통령의 연인>



대통령의 연인(The American President, 1995)
감독 로브 라이너 | 출연 마이클 더글라스(대통령 앤드류 셰퍼드), 아네티 베닝(시드니 웨이드), 마틴 션(A.J. 맥킨어니) | 미국 | 114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 세계에서 자신의 사진을 널리 퍼트리는 셀러브리티(Celebrity) 중 한 명이다. 굳이 정치인이 아니고 셀러브리티라고 쓴 이유는 그의 사진이 스타들의 화보와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미국이 워낙 이미지 정치에 강한 나라라고 하지만, 오바마의 사진들은 정치의 영역을 뛰어넘었다. 백악관의 사진작가로 일하며 종종 오바마의 사진을 올리는 피트 소자(@petesouza)의 트위터 계정에도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을 정도다. 수많은 오바마의 사진들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SNS유저들을 감동시킨 사진 중 하나는 그가 백악관의 청소부와 주먹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다. 한국의 어느 국회의원이 국회의 청소부를 외면하는 사진과 함께 대비돼 널리 퍼졌던 이 사진은 그 자체로 미담 뉴스였다.

그런데 그 사진은 정말 진실을 담고 있는 걸까? 이 장면 또한 누군가가 찍어서 공개한 사진 중 하나다. 버락 오바마란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과는 별개로 그 모습 또한 철저한 이미지 정치 중 하나라는 것이다. 사진 속의 오바마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남자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다. 대통령을 '남자'로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국회 등에서 찍히는 사진 속의 한국 정치인들은 모두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정치인이니 말이다. 여당 정치인, 야당 정치인, 조금 뚱뚱한 정치인, 머리가 조금 벗겨진 정치인, 그게 아니면 정말 정치인답게 생긴 정치인...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이러한 이미지 정치는 영화를 만드는 이들과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도 좀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갖게 만든다. <에어 포스 원>의 해리슨 포드와 같은 액션 영웅 대통령, <인디펜던스 데이>의 전투기 조종사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연인>이 그린 연인으로서의 대통령처럼 말이다. 그중에서도 로브 라이너 감독의 1995년 작인 <대통령의 연인(The American President)>은 로맨스 영화로써 가진 판타지와 정치 드라마의 현실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춘 작품으로 평가받는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 앤드류 셰퍼드(마이클 더글라스)는 민주당의 대통령이다. 그는 3년 전, 선거 당시 암으로 아내를 잃었다. 앤드류 개인의 능력과 아내를 잃은 불쌍한 남자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것이다. 이제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그는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기 규제 정책과 화석연료 소비 감축 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정치인과 단체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 이때 예전부터 앤드류를 지지했던 환경단체는 그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새로운 선수를 고용한다. 바로 로비스트인 시드니 웨이드(아네티 베닝)이다.

앤드류와 시드니의 첫 만남은 어딘가 드라마 속 대기업 실장님과 여성 신입사원의 만남과 닮아있다. 시드니는 앤드류가 곁에 있는 줄 모르고 그를 헐뜯는 발언을 하지만 앤드류는 시드니의 말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인다. 어쩔 줄 모르는 시드니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엉뚱한 말을 내뱉고 앤드류는 그러한 모습에 더욱 큰 호감을 느낀다. 아내를 잃은 후, 지난 3년간 대통령으로서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어린 딸을 키우는 아버지만 지냈던 그가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이다.

이 영화는 사랑에 빠진 대통령을 그저 한 명의 남자로 묘사한다. 자질구레한 일은 비서에게 일임하던 대통령이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직접 꽃집에 전화를 걸어 꽃배달을 주문하려 한다. 어떻게든 평범한 남자처럼 보이려고 자리를 비웠을 때는 딸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말도 시킨다. "아빠는 지금 치과의사랑 상담전화 중이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대통령과 군사장비에 대해 통화를 하던 중이었지만) 대통령이 사랑에 빠진 사이 그의 열애에 대한 공화당의 정치적 공세를 수습하는 건, 어디까지나 참모들의 일이다. 시드니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전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대통령의 말은 한결같다. "왜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시켜야 하나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은 점점 신뢰를 잃고, 급기야 과거 시드니가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며 성조기를 불태웠던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앤드류는 위기에 빠진다. 이 모든 걸 돌파하며 해피엔딩을 만들어내는 이 영화가 강조하는 대통령의 상이런 이런 것이다. 자신의 일에 뛰어나지만, 연애도 잘하는 남자.

한국에서도 정치인을 로맨스의 영역으로 끌어오려 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안성기와 최지우가 주연을 맡았던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란 영화가 있었고, 신하균과 이민정이 출연한 <내 연애의 모든 것>이란 드라마도 있었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흥행에는 실패했다. 작품 자체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치인만큼 로맨틱하지 않은 부류도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출근길에 만난 청소부와 주먹 인사를 하는 대통령이라면, 사람들과 농구를 즐기는 대통령이라면 상상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오바마를 흉내 낸다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그럴 리 없다. 당장 체통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이 없거나, 소를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올 게 분명하다.

결국, 정치인의 이미지는 정치인 자체의 개성과 국민의 상상력이 결부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키워온 상상력이 지금 한국 이미지 정치의 수준인 셈이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재래시장을 돌며 민생탐방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악수만을 하는 이유도, 그들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일단 안고 보는 것도, 그들이 어디를 가든 일단 음식을 먹고 보는 것도 사실 유권자가 그어놓은 선 안의 행동일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한 명의 '연인'처럼 보일 필요는 없지만, 이미지 정치의 영역이 더 넓어진다면 선거의 풍경도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누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일까? 정치인일까? 유권자일까? 분명한 건, 정치인을 뽑는 건 어디까지나 유권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10년 후, 20년 후의 달라진 선거 풍경을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넓히는 게 좋을 듯싶다. ㉞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 에디터



로브 라이너 감독의 1995년 작인 <대통령의 연인(The American President)>은 로맨스 영화로써 가진 판타지와 정치 드라마의 현실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춘 작품으로 평가받는 영화다.



The American President



초등학교 반장선거가 단순한 '인기투표'라구요?

초등학교 선거 新풍속도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 반장 또는 회장선거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그때의 반장선거는 단순한 '인기투표', 기호 1번 혹은 2번에 국한되는 '그들만의 리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공약을 준비하지 않고 선거 유세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사실 선거라고 불리기도 어려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최근 초등학교 선거 현장은 실제 선거와 흡사한 모습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초등학교의 반장이나 회장선거도 민주시민 양성과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 환기, 민주주의의 기초 형성 측면에서 큰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유난히 두드러지고 있는 초등학교 선거 풍속의 변화는 자라나는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적 의식을 심어주고 미래 선거·정치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기투표에서 치열한 선거운동의 현장으로

초등학교의 선거는 이제 잘 나가는 아이들의 인기투표가 아닌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학생들의 진지한 경선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선거에 참가하는 후보들의 모습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어른들 못지않게 진지하고 열정적입니다.

01 후보 6~7명은 거뜰, 반장·회장이 되고 싶은 학생들의 급증
최근 초등학교 선거는 시작 전부터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과거 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전교 회장(혹은 반장) 후보로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 프로그램이 약 2만 3,000여 명의 초등학교생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생 10명 중 6명은 반장이 되고 싶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3월 선거철의 초등학교에서는 많으면 10장의 후보 포스터가 벽면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일부 학교는 한 반에 절반 가까운 수의 학생이 후보로 출마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02 철저한 준비는 기본, 선거 홍보물과 공약, 유세의 세 박자
반장과 회장(부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요소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선거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후보 등록을 마감하며 이후 주어지는 선거운동기간은 2~3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후보들의 선거전은 정치인들의 선거 못지않게 열기가 치열합니다. 학교 앞 분석점이나 카페가 후보들의 선거캠프가 되며 포스터를 교내 곳곳에 붙이고, 홍보피켓을 들고 나 명함을 건네며 등·학교 시간과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자신을 뽐아달라는 열띤 유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후보자 자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을 돕는 친구들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선거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 꾸려지는 것이지요. 공식

적인 선거 유세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던 과거와 비교하면 아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홍보물의 퀄리티는 과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거나 전문 업체에 맡기는 홍보 피켓과 전단지, 명함에는 학생 본인의 사진과 기호, 이름과 함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일부는 선거를 위해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며, 공직선거의 선거벽보를 흉내 내어 만든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도 단순히 "학생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추상적 공약이 아닌 실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반영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보자들 사이에서 가장 HOT 했던 공약의 키워드는 '왕따 없는 학교', '학교 폭력 근절'이었으며 이외에도 '서로 소통하는 학교', '청소와 환경 보전에 힘쓰는 깨끗한 학교' 등을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더 붙여 지킬 수 없는 달콤한 약속은 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들의 태도는 선거에 임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와 의식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03 후보 토론회를 비롯한 성숙한 선거문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많은 수의 학교에서 임원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의 TV 토론회를 연상시키는 합동 연설 혹은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토론회는 방송장비를 통해 교실에 있는 TV로 학생들에게 생중계되고,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등 전문적인 토론회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엄격하게 지켜지는 시간을 전제로,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정견과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후에는 후보자와 공약의 검증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는 데 이때 오고 가는 답변과 질문이 여간 예리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토론회는 후보자들만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 유권자인 일반 학생들이 진지하게 후보자들과 공약을 비교하고 자신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성숙한 선거문화의 장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자 친구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일은 금지되고,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등 학교의 공식적인 규정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역시 미래유권자들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학습하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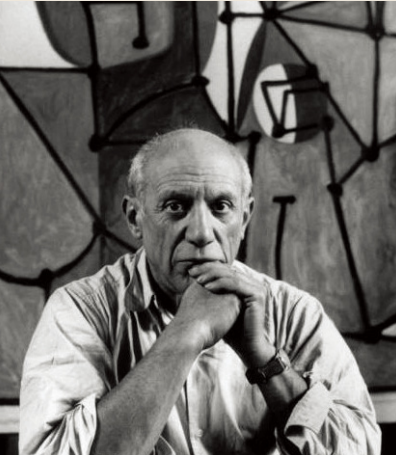
지나친 선거 과열과 물질만능주의

선거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생들의 선거가 점차 '물질 선거화'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돈만 주면 선거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주는 전문 업체나, 연설방법 및 토론방법을 지도하는 특강을 제공하는 학원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강 비용이 15만원, 연설본 원고료가 무려 5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질만능주의 의식을 심어주고 과도한 경쟁심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반장이나 회장직을 임시를 위한 스펙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는데요. 학부모들이 발벗고 나서다 보니 학생들의 자율적인 대표자 선출이라는 학교선거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의 양상이 과열된다거나 선거를 준비하고 유세를 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여 학교 측에서는 선거벽보, 합동연설회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거나 피켓과 포스터를 제외한 명함과 어깨띠 등의 홍보물을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마련하여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선거의 新풍속도를 살펴봤는데요. 최근 초등학교 선거 풍속의 변화는 미래의 유권자에게 민주적 선거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익히게 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의식을 정립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거문화의 발전을 통해 미래유권자들이 현명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되어 미래 선거문화를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㉞



한 폭의 그림에 담긴 비극적인 사건

피카소 <게르니카>



2010년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가를 걷고 있었다. 부슬부슬 비가 왔다. 행선지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었다. 긴 여행과 계속되는 미술관 순례에 발만 아니라 눈도 지쳐갔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저녁은 서울 여느 도심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질 정도였다. 한기도 느껴졌다. 미술관 앞에 섰을 때 건물 외관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가 저물었다. 병원을 개축해 만든 미술관이라는 선입견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일몰시각의 사멸하는 빛과 섞여들어 음습함으로 선득거렸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것 하나는 저녁 7시 이후가 무료입장이라는 것이었다. 충분한 감상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걸음을 재촉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터벅터벅. 한참을 돌아, 게르니카 앞에 섰다. 아니 게르니카가 눈으로 육박해 들어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손바닥 반도 안 되는 미술 교과서의 도판으로 접한 사람이라면 모두 나와 같을까. 할 말을 잃었다. 키를 넘는 높이와 두 팔을 서너 명이 벌려도 감당키 어려운 길이의 화폭

(3m50cm, 7m76cm). 분절된 신체와 무채색의 절제된 색사용으로 게르니카 마을에 일어난 폭격의 참상을 극대화한 작품 앞에서 감상을 표현할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다. 침묵하는 수밖에 없었다.

1937년 4월 26일. 독일군은 스페인 내전 중 공화주의자들의 근거지 가운데 하나인 게르니카 일대를 무참하게 폭격했다. 왜 독일군이이었을까. 전쟁을 준비하던 히틀러에게는 공군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무대가 필요했다. 명분은 파시스트의 연대를 위한 것이었다. 스페인 파시스트군의 요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였다. 교전규칙도 무시한 채 군부대로, 공항도, 제대로 된 방공시설도 없는, 여성과 아이들만 남은 게르니카로 히틀러의 공군기들이 날았다. 목표는 단 하나, 스페인 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대에게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힘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폭력은 인간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 무고한 민간인 학살의 소식에 파리는 들썩였다. 피카소는 그 해 파리 만국박람회 스페인관에 출품할 작품으로 게르니카를 선택했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을 묘사하려는 피카소의 시도는 과연 성공한 것일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아니 감히 경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힘든 비극을 그는 한 폭



예술가란 무엇인가. 그는 정치적인 존재다. 지속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괴롭거나, 씁쓸하거나, 달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세계에 의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고, 그들의 존재에 참여하지 않고 상아탑 안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회화는 실내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적에 대항하여 공격하고 수비하는 도구이다.

의 그림에 담았다. 아름다움이 주는 미적 쾌감을 뒤로 한 비극의 형상화는 인식의 저편에 있는 본질의 불편함을 마주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다. 들어선 홀의 한 벽면을 게르니카 한 점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참 동안 게르니카 앞을 떠나지 못했다.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절규하는 어머니, 기이한 눈을 가진 황소, 창에 찔려 절규하는 말, 그리고 잘려간 팔뚝, 다리, 머리... 그 뒤편으로 무너진 듯 보이는 벽면과 불로 보이는 삼각형의 상징들. 4시간 동안 수만 발이 쏟아진 게르니카의 비극을 해체하고 다시 조합해 평면적인 입체감을 살려내고 그리고 의도적인 왜곡으로 극대화했다.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평면에 구현하면서 전쟁의 참상이라는, 역설적으로 평화라는 함의를 드러내는 과정은 피카소가 일구낸 큐비즘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기도 했다.

게르니카 앞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입장할 때의 음습함은 잊은 지 오래였다. 작품 앞에 발이 묶였다. 거기에 할 말을 잃고 발이 묶인 관람객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 머문 것이 아니었다. 게르니카의 참상을 두고 다른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었다. 물론 황소를 폭력의 상징으로, 남성성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 여성의 해체된 모습이나 잘려나간 팔뚝에 들린 부서진 칼 등을 둘러싼 해석도 다양하다. 정작 피카소 자신도 게르니카에 대한 해석을 거부했다. 게르니카는 게르니카 자체로 존재하며,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 것이다. 비극은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몸으로 체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카소는 게르니카로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술가란 무엇인가. 그는 정치적인 존재다. 지속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괴롭거나, 씁쓸하거나, 달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세계에 의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흥미를 느끼지 않고, 그들의 존재에 참여하지 않고 상아탑 안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회화는 실내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적에 대항하여 공격하고 수비하는 도구이다.” - 피카소

스페인 화가 피카소가 스페인 북부지방 게르니카를 그렸지만,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으로 가기까지는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피카소는 스페인의 민주화가 될 때까지 게르니카는 게르니카로 돌아가지 못한다며 게르니카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결국 게르니카가 스페인으로 가게 된 것은 1981년. 게르니카의 참상을 촉발한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한 다음이었다. 피카소도 게르니카의 귀환을 보지 못했다. 스페인 민주정치의 부활과 게르니카의 귀환은 피카소의 유언이었다. ④



Guernica

필진 **하이영** **기자**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탐사보도팀, 사회부, 경제부, 문화부, 한겨레21 등을 거쳤음. 한국기자상(42회, 43회), 관훈언론상(29회), 민주언론상(20회) 수상. 저서 <은밀한 호황>(공저).

사건을 말하다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합법일까? 불법일까?



○○시 지역의 한 아파트 노인정 앞, 택시 한대가 멈췄다. 택시 기사 A씨는 차 밖에서 손님을 기다렸다. 이 아파트 노인회장 B씨 등 주민 5명이 나타나자, A씨는 직접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꾸벅했다.

행선지는 동 주민센터였다.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A씨가 먼저 내렸다. 친절한 택시 기사마냥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B씨 등이 내린 뒤에도 A씨는 주민센터 앞에서 기다렸다. 다른 손님이 차를 탈 수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예약 손님이 있다.”라고 말했다. B씨 등 일행이 나오자 그는 이들을 태우고 다시 아파트 노인정으로 되돌아왔다. A씨는 B씨 일행에게 택시요금을 받지 않았다. B씨 등이 되돌아온 후 이번에는 아까 태우지 못한 노인들을 택시에 태워 다시 동 주민센터로 향했다. A씨는 이렇게 아파트 노인정과 주민센터를 여러 번 왕복 운전했다.

순수한 자원봉사라던 표창이라도 받겠지만, A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A씨가 노인정과 주민센터를 오간 날은 바로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투표일이었다. 그는 사전투표일에 선거구민의 투표를 위해 투표소까지 왕복 운전을 한 것이다. 모 정당 관계자가 같은 택시가 반복적으로 도착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택시의 행방을 뒤쫓았고 노인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조사 결과 A씨

는 택시요금을 받지 않고 노인들을 사전투표소에 태워다 주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출마한 모 후보의 캠프에서 직능별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택시에 탔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조사해보니, A씨는 ‘친절한 기사’가 아니라 ‘열성 운동원’이었다. 그는 택시를 운전하며 “어르신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후보가 노인센터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을 많이 썼습니까.”라며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하여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가진 선거인에게 배부할 의도로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다닌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A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및 매수목적 금품운반행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권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A씨는 특정 후보자를 위해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하여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다면 투표소까지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일까? 그렇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미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여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선거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므로 교통편의처럼 아무리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오랫날 무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기부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친절은 배풀지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㉞

※ 본 내용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바탕으로 극화·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과>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Beautiful day

QR코드를 스캔하면 보여요!

영화 속 선거를 만나다

<선거 캠페인(The Campaign, 2012)>
모든 후보들은 한 사람을 연기한다

<우리 의사 선생님(Dear Doctor, 2009)>
투표에 앞서 선택을 의심해 봐야 하는 이유



오늘의 선거역사가 궁금해

1986 필리핀 혁명, “부정선거가 부른 피를 따위의 힘”



러시아의 제1·2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



1999년 동티모르 독립투표



‘재스민혁명’ 튀니지의 10월 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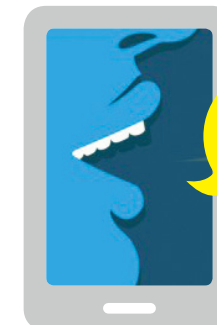


재미있는 선거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에서 ‘후보자 지지도’ 읽기



선거여론조사의 악용에 대해



선거법 사건텔링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는 불법 선거



대리운전비도 불법



재기발랄 선거명예기자단 특 TALK!

20세 영국 최연소 여대생 국회의원 ‘마리 블랙’



ZOOM IN! 선거의 동반자, 선거 컨설턴트



정당 국고보조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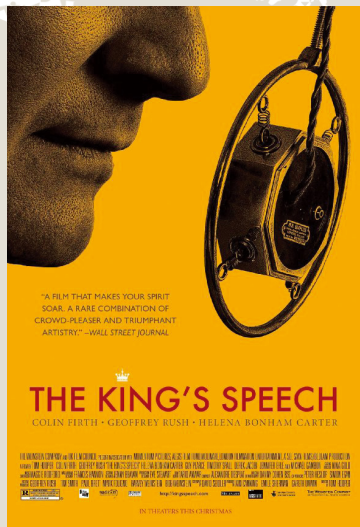


싱가포르의 국부 ‘리관유’ 여섯 번째 별이 되다



연설을 위해 몸을 단련시킨 정치인

영화 <킹스 스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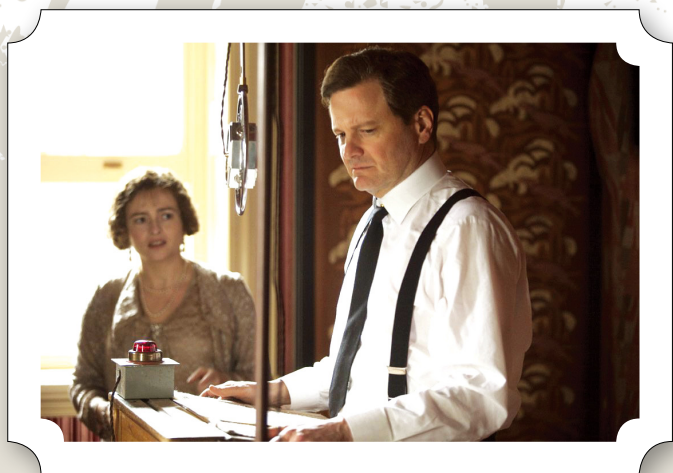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ech, 2010)
감독 톰 후퍼 | 출연 콜린 퍼스(조지 6세), 제프리 러쉬(라이오넬 로그), 헬레나 본햄 카터(퀸 엘리자베스 I) | 영국 | 118분

정치인에게 연설의 능력은 곧 정치의 능력이다. 단순히 메시지만 전달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설득시켜야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반박을 무력화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의 진심이 담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진심이 담겨야겠지만, 누가 그의 진심을 알아줄까? 정확히 말하면 진심이 담겨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느끼도록 만들 연기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기력에는 멋진 단어뿐만 아니라 쇼맨십이 필요할 때도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기에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폴타임으로 일하면서 1년에 1만 5,000달러(약 1,600만원) 미만을 받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번 그렇게 살아보라. 그게 아니라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백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표를 던져라!”

대통령의 연설치고는 다소 과격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일으켰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으며, 무엇보다 감동을 전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치인의 명연설에는 주로 외국 정치인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걸까? 돌아보면 한국 정치인의 연설 가운데 그나마 어렵듯이 기억에 남아있는 건, SNS 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됐던 연설이 대부분이다. 감동을 전하거나, 화려한 쇼맨십으로 사람들의 머리에 잊을 수 없는 풍경을 만들었던 한국 정치인의 연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정치인에게 쇼맨십보다는 차분함과 점잖은 이미지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설에 그리 많은 공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영화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ech, 2010)>는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은 왕 중 한 명인 조지 6세의 이야기다. 어렸을 때부터 말더듬이 심했던 그가 마이크에 대한 공포를 치료하는 과정을 다룬 성장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킹스 스피치>는 한 명의 정치인이 자신의 연설을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왕족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낮고 비천한 존재야. 옛날에는 말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됐지만 이제는 각 가정에 비위도 맞추고 홍보를 해야 해. 우리는 이제 배우가 된 거야.”

세금을 걷거나, 전쟁을 선포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도 없는 그저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국민을 향한 연설뿐이다. 조지 6세의 고통은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가족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만약 라디오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형인 에드워드 8세가 사랑에 빠지지만 않았다면, 자신이 왕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또한 조지 5세의 말은 현재의 정치인에게도 그대로 해당될 것이다. 정치인에게 연기력은 원래도 중요했지만 수많은 동영상과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은 더 중요한 덕목이 됐다. 이에 따라 정치인의 연설에도 시대에 맞는 비주얼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완성도 높은 연기를 위해서는 <킹스 스피치>의 조지 6세처럼 자신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쌓아놓은 점잖음에 대한 강박도 벗어 버릴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무대는 조지 6세가 아직 앨버트 왕자, 듀크 공작 혹은 버티(콜린 퍼스)로 불리던 1930년대 런던이다. 아버지인 조지 5세(마이클 갬본)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형 에드워드 8세(가이 피어스)는 미국인인데다가 두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윌리스 심슨(이브 베스트)과 사랑에 빠져 있다. 장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조지 5세는 둘째 아들인 버티에게도 왕족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한다. 버티에게는 무엇보다 아버지를 대신해 연설을 해야 하는 일이 큰 곤욕이다. 소문난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지만 발음 연습에 치중한 그들의 치료법은 버티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이다. 그런 남편의 고통을 보다 못한 아내 엘리자베스(헬레나 본햄 카터)는 수소문 끝에 호주에서 온 괴짜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제프리 러쉬)를 찾아낸다. 그는 재야에서 소문난 언어치료사인 동시에 세익스피어의 연극에 심취해 있는 연극배우 지망생이다. 왕자를 대면한 라이오넬은 무뎠게도 동등한 위치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을 버티(왕가에서만 부르던 이름)로 부를게요. 제 궁궐에서는 제 법을 따라주세요.” 영국이 전 세계 58개 연방을 갖고 있던 시절, 영국의 왕자와 호주 출신 배우 지망생의 지위는 이때부터 반전된다. 버티는 왕자인 자신이 평민에게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굴욕과 거둬드는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는 말더듬 증세, 점점 더 제멋대로인 형과의 갈등 속에서 더욱 깊은 두려움에 빠진다.

개봉 당시, 영국의 영화 전문지 『엠퍼이어』는 <킹스 스피치>를 “장애를 가진 왕족의 <록키>”라고 평했다. <킹스 스피치>는 자신과의 가혹한 싸움, 그리고 인간승리의 드라마라는 것 외에도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훈련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영화와 비슷한 느낌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감내해야 하는 주인공이 왕족이라면 어떨까. 앓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아내를 배 위에 올린 상태에서 호흡 훈련을 하고, 차가운 마룻바닥을 굴러다니는 왕자라니. 것처럼 <킹스 스피치>는 왕을 왕이 아닌 고통을 겪는 한 명의 인간으로 그리고 있다. 극 중에서 조지 6세의 아버지인 조지 5세 또한 이렇게 말한다.

<킹스 스피치>는 이미지 정치가 태동한 시점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이상적인 자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영화다. 그 자질은 연설 능력이기도 하고 연기력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경우 열정을 쏟아 노력하는 태도일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정치인이 자신의 연설에 진심을 담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바닥을 구르고, 소리를 지르던 노력 덕분에 조지 6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과 군인들을 결집시켰고, 덕분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다. 것처럼 감동적인 연설이 많아 선거 또한 더 흥미로운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서로를 힐뜩이는 비방만 난무하는 선거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울 건 분명하다. ⑩

강병진 영화저널리스트,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뉴스 에디터



The King's Speech





1946년 6월 2일, 이탈리아의 운명적 국민투표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우선 로마 제국이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천수백 년 동안 통일된 이탈리아는 없었다.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피사, 제노바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 국가들이 중세 유럽을 수놓았지만 그들은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칼라브리아'나 '시칠리아'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이탈리아 반도는 점차 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기 시작한다. 어린이들의 필독서라 할 아마치스의 <쿠오레>, 즉 '사랑의 학교'는 통일을 막 이룬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탈리아 사람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주제로 한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오스트리아 군과 맞선 이탈리아 군의 소년병 이야기라든가, 여객선 안에서 외국인들의 동전을 잔뜩 받은 이탈리아 고아가 이탈리아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받은 동전을 내던지며 "내 조국을 욕하는 이들에게는 한 푼도 받고 싶지 않다!"고 부르짖는 장면은 기억에 새롭다. 그렇듯 이탈리아는 '만들어진' 나라였다.

천 년이 넘도록 조각조각 떨어져서 제 방식대로 살아온 수백 개의 땅덩이를 깎고 꿰매 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반도의 맨 위쪽에 있는 사르디니아 왕국에서 일어났다. 사르디니아의 왕 '비토르 에마누엘레 2세'가 그 중심이었다. 그는 유능한 신하 카부르의 보필을 받으며 북이탈리아를 지배하던 오스트리아에 맞서 싸우는 한편, 이탈리아인들에게 통일의 열망을 불어넣었다. 바로 이 시기에 활약한 음악가가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불세출의 오페라 작가 '주세페 베르디'였다.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목놓아 부르는 '노예들의 합창'은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탈리아인들의 가슴을 뒤흔들었고 애국적 열정에 휩싸인 그들은 오페라가 끝난 뒤 '비바 베르디(Viva Verdi, 베르디 만세)'를 부르짖었다. 이 베르디에는 두 가지 뜻이 있었다. 작곡가 베르디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Vittorio Emanuele Re d'Italia(이탈리아 왕 비토르 에마누엘레)'의 약자이기도 했다. 즉 이탈리아인들은 베르디 만세와 동시에 국왕 비토르 에마누엘레 만세를 부르짖었던 셈이다.



비토르 에마누엘레 2세와 이탈리아가 낳은 혁명가 '가리발디'가 손을 잡으면서 이탈리아 통일은 성큼 다가왔다. 이탈리아 남부를 석권한 붉은 셔츠단의 가리발디는 비토르 에마누엘레의 통치권을 인정했고 그를 위해 싸웠다. 교황령의 로마와 오스트리아가 마지막까지 점거하고 있던 베네치아만이 남았을 즈음, 1861년 3월 소집된 이탈리아 의회는 비토르 에마누엘레 2세를 이탈리아의 왕으로 공표한다. 이 직후 숨진 이탈리아 통일의 공로자이자 왕의 충신 카부르는 이런 말을 남긴다. "이탈리아는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안전하다." 이윽고 베네치아가 통일 이탈리아의 일부가 됐고 로마에서도 외국군이 철수하면서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은 실로 천수백 년 만에 달성되었다. 비토르 에마누엘레의 사보이 왕가는 그 감동의 중심에서 있었다.

그래서일까 이탈리아 국왕은 영국의 왕과는 사뭇 달랐다. 영국에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입헌군주제가 자리 잡은 지 오래였지만, 이탈리아 왕은 수상 임명권, 의회 해산권, 의회가 제정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등 근대 이전의 왕이 지녔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이탈리아 왕가는 그렇게 비토르 에마누엘레 2세가 쌓아 올린 위업에 부응하지 못했다. 에마누엘레 2세의 아들 움베르토 1세는 제국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혀 아프리카의 거의 유일한 독립국이었던 에티오피아를 공격했지만 참담한 패전을 맛보았고 무정부주의자의 총에 맞아 암살된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비토르 에마누엘레 3세. 20세기 전반기 이탈리아를 다스린 왕이었다.

그는 1차 대전 당시 중립을 지키려던 정부를 압박해 연합군 쪽으로 참전하게 했으나, 이탈리아 군 수십만의 희생만 낳고 얻은 것 없이 헛물만 켜게 된다. 전후의 혼란 속에서 노심초사하던 그에게 또 한 번 선택의 기로가 들이닥친다. 바로 1922년 파시스트 무솔리니의 이른바 '로마 진군'이었다. 무솔리니가 이끄는 검은 셔츠단은 기세 등등하게 로마로 진군하긴 했지만 정부는 이를 진압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그럴만한 실력도 있었다. 그런데 진압을 위해 비토르 에마누엘레 3세에게 마지막 재가를 요청한 순간, 국왕은 그를 거절한다. 정치권의 혼란에 넉더리를 냈고 부친을 암살한 무정부주의자의 기억으로 좌파에 대한 혐오감을 강하게 드러낸 국왕이 파시스트라는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후 2차 대전의 파국에 이르기까지 에마누엘레 3세는 '20세기의 시저'라고 자칭한 무솔리니의 그림자에 가려 별반 존재감 없는 세월을 보낸다. 하지만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하고 무솔리니 정권이 위기에 처하면서 다시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발동한다. 무솔리니를 해임한 것이다. 무솔리니는 연금됐다가 독일군에 의해 구출됐지만 이탈리아의 파르티잔에 의해 참혹한 최후를 맞는다.

전쟁은 끝났으나 이탈리아를 전쟁에 끌어들이던 파시스트를 용납했던 국왕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다. 물론 에마누엘레 2세의 아들 움베르토는 이탈리아 군을 이끌고 무솔리니와 그를 조종하던 독일군과 싸워 명망을 쌓기도 했지만 독일군과 연합군의 주전장이 됐던 북이탈리아와 파시스트들의 횡포에 피눈물을 흘렸던 공화파들이 왕정 타도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를 만든 왕가에 대하여 이탈리아인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에마누엘레 3세는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에게 양위까지 하며 발버둥을 쳤다. 움베르토 2세가 왕위에 오른 한 달 후, 1946년 6월 2일 운명의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왕정이나 공화제냐를 결정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결정이었다.

당연히 공화파의 목소리가 컸고 전후의 절대자 미국도 사보이 왕가를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화파의 압승이 예상됐고, 심지어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차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투표 결과는 54대 46으로 나타났다. 왕가에 충성을 버리지 않은 이탈리아인들도 많았던 것이다. 조반니노 과레스끼의 소설 <돈 까밀로와 뽀뽀네>를 보면 이미 공화국이 된 지 한참 지난 뒤에도 "너희들이 왕을 내쫓았지?"하며 공산주의자들에게 분노하는 늙은 여교사가 등장한다. 그녀는 "왕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라며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녀의

이탈리아 통일의 공로자이자 왕의 충신 카부르는 이런 말을 남긴다. "이탈리아는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안전하다." 이윽고 베네치아가 통일 이탈리아의 일부가 됐고 로마에서도 외국군이 철수하면서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은 실로 천수백 년 만에 달성되었다. 비토르 에마누엘레의 사보이 왕가는 그 감동의 중심에서 있었다.



연배는 바로 통일 이탈리아의 첫 세대, 즉 아마치스의 '사랑의 학교'에서 통일 이탈리아인으로 교육받은 이들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이탈리아 남부의 왕정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창조자였던 사보이 왕가는 그들 신민의 투표를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사보이 왕가의 남자들은 2002년까지 이탈리아 입국을 금지 당했다.

이탈리아에서 6월 2일은 '공화국의 날'로 기념되며 군대에서 경찰관, 소방관 등 제복을 입은 거의 모든 조직들이 일대 퍼레이드를 벌이며 로마 거리를 행진한다고 한다. 1861년 통일 선언 직후, '마시모 디젤리오'라는 자는 이런 말을 했다. "이탈리아는 만들어졌다. 이제 이탈리아 민족을 만들 차례다." 그의 말대로 이탈리아 국민 역시 만들어졌고, 그들은 이탈리아를 만든 왕가를 자신들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공화국을 세웠다. 역사란 그렇게 묘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찬란한 공훈이 존재한다 해도 오늘을 그린 이들은 공훈에 관계없는 책임을 치르게 된다. 1946년 6월 2일, 이탈리아 왕가가 깨우친 일이었다. 10

필진 김형민 PD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 전공인 국사와 세계사를 틈틈이 공부해 SNS와 블로그에 '산하의 오역'이란 제목으로 역사관련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모은 글을 엮어 '그들이 살았던 오늘'의 제목으로 책을 냈다. 현재 sbcsbnc에서 PD로 활동 중이다.

